

## 退溪書堂教育의 전개 과정\*\*

權 五 鳳\*

### • 目 次 •

- |                 |                  |
|-----------------|------------------|
| I. 서 언          | IV. 書堂教育의 전개와 제약 |
| II. 教育에 대한 집념   | V. 陶山書堂 教育과 그 영향 |
| III. 教育對象과 그 확대 | VI. 결 언          |

### I. 서 언

퇴계의 저술을 완전하게 분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의 교육 의지나 전개 과정을 논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되나, 필자가 현재까지 논저를 섭렵한 범위내에서라도 이왕의 관점들에서 몇 가지 문제가 없지 않으므로 논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먼저 그러한 문제를 몇 가지 열거하면,

첫째, 퇴계의 서당교육은 도산서당에서 처음 시작되었는가,

둘째, 그가 한 서당교육은 송나라 백록동 교육에서만 시사를 받았는가,

셋째, 그의 교육 대상은 사대부가의 자제들 뿐이었던가,

넷째, 감독 관계로부터는 아무 간섭과 제약을 받지 않았는가, 제약을 받았음에도 사교육에 전념한 목적은 무엇인가,

\* 전 포항공대 교양학과 교수

\*\*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제72호, (1991) 게재논문

다섯째, 그의 교육 시설(策)은 제도권 교육과 종래 해오던 지방 교육(居接, 과거중심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여섯째, 정설로 되다시피한 도산서당에 입문 수학한 인물은 모두 확실한 근거가 있는가,  
 일곱째, 도산서당의 조성(건축)사와 교육운영에 대한 연구는 교육사적 측면에서 전혀 연구할 가치가 없는가,  
 여덟째, 퇴계의 궁극적인 교육목적은 무엇이었던가,  
 등이다.

이 사실들에 관하여 현재까지 필자가 《退溪의 生活實事(예던길)》, 《퇴계의 燕居와 思想形成》, 《퇴계의 家學과 사상 형성》, 《退溪家年表》, 《李退溪家書의 總合的 研究(日語版)》, 《退溪詩大全》 등의 책을 쓰면서 연구 주자료로 삼은 家書·詩·狀·碣·志文, 門人이 기록해 놓은 언행록 등을 중심으로 愚見을 논술하고자 한다.

## II. 教育에 대한 집념

### (1) 立志

퇴계는 6세에 이웃집 노인에게 천자문을 배운<sup>1)</sup> 것과 12세에 숙부 松齋公(李堦·江原監司 및 參判 역임)한테 논어를 배운<sup>2)</sup> 외에는 모두 자학 궁리로 학문을 이룩한 사람이다.

그는 숙부의 지시에 따라 13·15세 때에 사촌 남매 여럿과 함께 청량산의 사암에서 독서를 하였고,<sup>3)</sup> 16세 때는 姜翰, 權敏義, 종제인 壽峇과 함께 공부를 하였다.<sup>4)</sup> 그 뒤는 인근 절간에 들어가서 독서를 하

1) 年譜·中宗元年 丙寅 六歲:始知讀書 隣有老夫 頗解千字文 先生就學.

2) 同·同7년 12세 受論語于叔父松齋公堦

3) 拙著《退溪家年表》p.44, 13세 2월條 및 동 p.48, 15세 봄條

4) 上揭書, p.48, 16세 봄條

였으나 그의 집안 家塾으로 삼은 용두산 용수사에 비교적 자주 오래 머물면서 학문의 기초를 닦았다.<sup>5)</sup> 19세 때는 영주에 있는 의원에 가서 의학 수업도 하였다.<sup>6)</sup>

17세 때 숙부 송재공이 죽었지만 이제까지는 선대의 家學의 힘이 컸고, 그 외에는 주로 그를 교육한 사람은 어머니였으므로 가학이 그를 한평생 이끌어 준 셈이다.<sup>7)</sup>

퇴계의 시는 그의 내면 세계와 추구를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자료이며, 성공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도 유익한 근거가 된다.

그의 작품중에서 최연소 때의 시로는 <石蟹>란 시가 문집에 전한다. 이 시는 그의 우주관과 자품을 드러낸다.

負石穿妙自有家 돌지고 모래 파면 집은 절로 되고,  
前行卻走足偏多 생긴 많은 발로 어디로든 잘 달리며  
生涯一掬山泉裏 평생을 한웅큼 샘물로만 살아가니,  
不問江湖水幾何 강호의 물이야 얼마이든 알 바 없네.<sup>8)</sup>

또 18세 때는 <野池(塘)>란 다음 시를 읊었다.

露草夭夭繞水涯 이슬 젖은 어린 풀새 물가에 둘러 있고,  
小塘淸活淨無沙 작은 못 맑디 맑아 모래마저 없노매라.  
雲飛鳥過元相管 나는 구름 지나는 새 의례 관계 있건마는,  
只怕時時燕蹴波 다만 저 제비가 물결 찰까 두렵노라.<sup>9)</sup>

이 시는 한평생(46세, 50세, 60세) 일관되게 우주를 동찰한 철학의

5) 上揭書, p.53, 24세 7월 15일條 외 多有

6) 上揭書, pp.50~51. 19세 영주 肄業

7) 拙稿(미간행) <退溪의 家學과 思想形成>(1990.8.28 제12회 모스크바 국제대회에서 발표)

8) 續集·卷一, 葉 10, 拙著《退溪의 燕居와 思想形成》p.16, 拙著《예던길》p.29.

9) 年譜·p.114, 문집外集·卷一, 葉 5, 拙著《예던길》p.29.

맹아를 드러내었거니와 18세까지 그의 시의 배경은 家莊을 벗어나 산야에 머물렀다.

퇴계가 18세 때까지는 아직 주희의 시를 읽지 못했다. 19세에 가서야 성리대전 首末(太極圖說과 詩部) 두 권을 입수하여 읽고 대전 끝머리의 주희와 소옹의 시를 접한다. 19세의 <詠懷>시는 분명히 주희의 영향을 받는다.

두 시를 비교해 보면

半畝方塘一鑑開	燭爰林廬萬卷書
天光雲影共徘徊	一般心事十年餘
問渠那得如許清	邇來似與源頭會
爲有源頭活水來	都把吾心看太虛
<朱熹詩>	<退溪詩>

퇴계가 주희의 源頭 活水を 理會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故 廣도대학 교수 友枝龍太郎 박사가 그의 저서 《李退溪》에서 밝혔듯이, 퇴계는 張載(號·橫渠, 1020~1070)의 《西銘》과 《正蒙》이나 邵雍(諡·康節, 1011~1077)의 《皇極經世書》(大全 卷 7~13)를 접하지 못하였는데도 그는 橫渠의 ‘太極’(空空漠漠한 虛空)을 깨닫고 <都把吾心看太虛:마음을 太極으로 본다>고 읊었다. 이것은 강철이 <先天을 太虛라 부른다>(先天吟示那和叔;一片先天號太虛. 大全 卷 70의 詩部를 보았다고 인정하더라도)와는 한 걸음 앞선 성리의 자각적 체득인 것이다.

퇴계가 독자적인 궁리와 주야불매의 공부 끝에 획득한 철학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이제까지도 스승 없이 독학으로 학문을 했지만 20세 때에 가서는 고질의 위장병에 걸릴 것을 예측 못하고 밤낮 침식을 잊은 채 역학 공부를 하였다. 외부로부터의 가르침이 없는 대신 내부로부터 존재의 근원을 주체적으로 體認하였다.<sup>10)</sup>

그는 스승 없이 공부를 하므로 1자 1구의 어의와 활용, 제자의 근거

10) 友枝龍太郎, 《李退溪—その生涯と思想》, p.17.

와 유래, 변천까지도 段說文과 辭書를 가지고 궁구하였고, 문의를 뚫었다. 뒷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지만 남의 것은 毫釐도 그대로 信取하고 이용하거나 전용하지 않았고, 성현의 저술이라 하더라도 그 근원을 파들어갔다. 물을 데도 없었거니와 뒷날 주희가 해석한 《啓蒙》(易學)이 잘못된 곳이 있어서 《啓蒙傳疑》(57세 때 완성했으나 그 연구는 이미 19~20세 때에 이루어졌음)를 저술한 것을 보면 그의 학문의 깊이를 알 수 있다.

수학 과정을 좀 장황하게 쓴 것 같다. 이것은 그에게 스승이 없었기 때문에 겪은 고난과 그랬기 때문에 그의 학문 방법과 이론이 더 과학적이고 정미하다는 것을 설명하려 한 까닭이다.

퇴계는 50세에 이르러서도 ‘오늘날 배울 스승이 없다’고 한탄하였지만 이 말은 세상에 도학 군자가 그 시대에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한 평생 그에게는 의문을 해결해 주고 진리를 강의해 줄 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는 학문을 인도해 줄 교육자와 시설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청년기의 수학 과정을 보낸 사람이다.

그가 읊은 26세의 다음 시는 20대 후반의 심상을 모색해 낼 수가 있다.

高齋蕭洒碧山傍	푸른산 곁에 있는 큰 집이 쓸쓸하나,
祇有圖書萬軸藏	그 안에는 만권 도서 가득하여라.
東澗遶門西澗合	저 멀리 동서 개울 동문 이루고,
南山接翠北山長	남북으로 뻗은 산은 취벽을 맞잡았다.
白雲野宿留簷濕	흰구름 밤에 와 자니 처마가 젖고,
淸月時來滿室涼	밝은 달이 때때로 와 방을 훤히 비취 준다.
莫道山居無一事	산 속에 사는 사람 할 일 없다 말을 마오.
平生志願更難量	내 평생 하고픈 일 헤아리기 어려워라.

<山居>란 이 시를 읊을 때는 부친은 안 계시고(생후 1년 미만에 부 李植이 죽어서 얼굴도 모르고 모친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성장함) 兄(四兄 李滄, 號·溫溪, 大司憲, 忠淸·黃海監司를 지냄)이 성균관 유학을

떠나자 형의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모시던 때이다. 가족은 어머니, 부인 허씨, 장남 孳이었다. 本宅에는 伯兄(前母에서 남)은 죽고 長姪 李寅과 형수가 살았다. 퇴계는 이 때 소과도 하지 않은 젊은 한 서생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莫道山居無一事, 平生志願更難量’이라 하고 그 志願의 의미를 붙여 이 시를 읊고 있다.

그러나 이듬해 그의 나이 27세 때에는 큰 파란이 닥친다. 21세 때 혼인한 부인(同甲)이 10월 말일에 둘째 아들 冢을 낳고 산후병으로 11월 7일에 죽는다. 모친을 모시기 위해서 兄舍에 들어갔는데 핏덩이를 남긴채 부인이 죽었으므로 어머니에게 고생을 더 가중시킨 결과가 되었다. 생후 1개월 미만의 아기를 키우는 일은 더욱 힘들었다. 퇴계는 두 문제를 해결하는 공여지책으로 유모를 들여왔다. 그 유모는 퇴계가 생애를 마친 후까지 도산의 시골 살림을 맡아 한 후부인이다. 퇴계는 그녀를 버리지 않았고 奉育과 세간을 맡겨 僭老하였으나, 그는 또 하나의 짐을 맡아야 했다. 30세 때에 예안 땅에 귀양을 와 있던 權磻로부터 정신이 박약한 딸을 맡아 달라는 청혼을 받고 시집보낼 형편이 안되는 權氏夫人(조부는 갑자사화 때 평해로 유배되었다가 연산의 사약으로 죽고, 부친은 거제도도 圍籬安置, 중종반정으로 풀려서 錄用 공신이 됨, 뒷날 숙부 權磻이 安塘, 安處謙의 역모사건에 얽혀 杖殺을 당하고 숙모는 관비로 잡혀 갔는데 이 일들을 겪고 소녀 권씨가 혼을 잃고 정신이 몽롱해졌으며 부친도 연좌되어 예안으로 유찬되어 9년째 됨)과 재혼을 하게 된다. 재혼한 1530년(庚寅) 6월에는 후부인인 유모가 冢을 낳아 셋째 아들을 얻게 된다.

퇴계는 지산 기슭에 모사(芝山蝸舍)를 지어 권씨부인은 따로 살게 하고 양가 7식구의 복잡한 가정생활을 꾸려 나간다. 이같은 多端한 생활을 하면서도 퇴계는 34세까지 7번의 대소과를 치루어 34세 때에 출사하고 권씨부인은 서울 서소문에 데리고 가서 정실로서의 극진한 예우를 했다. 30대 초까지의 퇴계의 생활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1)</sup>

앞에 提據한 시 ‘山居’의 뜻이 과거를 거친 출세에 있었던가 아니면 또 다른 사업이 그에게 있었던가 하는 문제다. 그가 벼슬을 버리고 幽居에 들어간 51세 때 계상서당(溪堂)을 지어서 찾아오는 문인을 가르치면서 읊은 다음 시는 긴 26년 동안 그의 가슴 속에 품고 있던 의지가 무엇인가를 짐작하게 한다.

舍舊遷新此水傍 낡은 집 새로 옮겨 이 물가에 지었더니,  
君尋巢拙謂堪藏 그대 찾아와 묻네, 허술한 집에서 어떻게 건디느냐고.  
夔蚊本不知多少 夔와 지네 발의 多少 승리 본래 알 수 없고,  
鳧鶴寧須較長短 오리와 학의 다리 견주어 무엇하리.  
萬卷芳塵吾有慕 책 속의 성인 말씀 내가 존모하고 있기에  
一瓢眞樂子非涼瓢飲의 참 즐거움 淸心 기름 아니런가.  
因思廿六年前事 스무여섯 해 전에 먹은 마음 이제와 더듬어 보니  
東海添愁浩莫量 동해보다 더한 근심 크고 넓어 잴 수 없네<sup>12)</sup>

이 시는 계상서당(1551년 開設, 뒤에 상술함)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읊었음을 유의해야 한다. 26세 때의 ‘志願更難量’을 51세 때에 가서 ‘添愁浩莫量’이라 하였으니 그가 작정한 大業(志願)이 뜻대로 되지 않아 초조하고 불만족스러우나 진행 중이었음을 살필 수가 있다. 서당에서 강학을 하면서 읊은 이 시에 담긴 퇴계의 ‘志願’과 ‘添愁’는 26년동안 변함없는 그의 교육에 대한 집념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의 교육에 대한 집념과 서당 조성을 위한 着念을 또 다른 자료에서 찾아보자.

46세 때 퇴계는 東岩(도산면 토계동, 소지명은 하계, 현 퇴계 묘소 입구)곁에 養眞庵이라 한 草屋을 짓고 幽居하였다. (그 해 3월에 장인 장례를 위하여 귀향했다가 병을 얻어 상경치 못하고 있던 중 홀로 서울

11) 上揭拙著, 《예던길》 pp.75~87

上揭拙著, 《退溪家年表》 pp.56~59, 27세~31세조

12) 上揭拙著, 《燕居와 思想形成》, p.76

에 기다리고 있던 권씨부인이 7월 2일 갑자기 죽었다. 8월 말에 運喪하여 이듬해 봄에 장례를 지냈고 그동안 소명이 있었으나 복중이라 움직이지 않고 찾아오는 생도의 講質에 응하였다. 아들 雋은 繼母의 묘하에 시묘를 하였다. 권씨부인의 묘는 庵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다.) 동암 양진암에 수업한 제자로서는 鄭以淸, 黃俊良, 趙穆, 盧慶麟 같은 사람을 들 수 있다.

盧慶麟(호·四印堂, 뒷날 1557년에 율곡 이이를 성주목사 재임중에 사위로 맞는다)이 해주에서 찾아왔다. 서울 留京中에도 방문한 일이 있었다. 노공은 퇴계에게 林居하는 뜻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퇴계는 그에게 隴畝人(隴畝人)으로 돌아왔노라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林居意趣君休問 自是清時隴畝人<sup>13)</sup>

그러나 이 때 노사인당에게 읊어 준 三首의 시중 第二首에는 그의 林居 의취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서가 있다.

노공과 崔文憲公(沖)이 모두 해주인이기 때문에 文憲公이 생도를 모아 가르친 ‘誦說’과 ‘斯文’의 공을 자연스럽게 화제에 올려 이야기했겠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聚徒 講學이 대화의 중심이었음을 이 시는 左據로서 충분하다. 사인당은 퇴계가 끝머리(首)에서 밝힌

萬事人間都信易 一生隨處我生觀

인간만사는 모두 역리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기우므로  
한 평생 어디서든지 나는 이 세계관으로 살리라.

는 말을 듣고 세상사와 교학에 관한 퇴계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을 줄 짐작한다.

퇴계가 이즈음 그의 뜻을 명확히 밝혀 놓은 어록으로는 <東岩言志>라

13) 續集·卷一, 葉 28, 四印居士盧仁父(甫) 見訪用前韻



는 시 二種을 들 수 있다. 두 시의 끝 연을 들어 본다.

丁寧莫向詩僧道 不是真休是病休<sup>14)</sup>  
天開眞樂無涯地 築室優游思莫緘<sup>15)</sup>

정녕 시인(詩僧<sup>16)</sup>=詩佛)의 길로만 향하지 않을 것을  
이것은 진짜 쉬는 것이 아니라 아파서 이렇게 쉬는 것.  
하늘이 참 즐거움을 누리게 열어준 가 없는 여기,  
내 집 지어 잘 쉬지만 생각을 단아버리지는 않으리라.

퇴계는 풍류 같은 것을 즐기고 仙佛이 되는 것도 아니며, 사유와 의지를 꺾고 집 지어 들어 앉아 쉬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태도와 자세를 言志詩를 가지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다른 시에서 자기의 築室幽居의 목적을 더 확실하게 밝히고 있다. 그 시를 자세히 음미하기로 하자.

山翁笑問溪翁事 只要躬耕代舌耕<sup>17)</sup>

마을 늙은이가 웃으면서 묻기를 ‘퇴계가 할 일은?’  
‘힘써 농사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교육으로 대신하겠소.’

자문자답 형식으로 해석하면 뜻이 다짐으로 보여 더욱 강할 것이다. 그는 이 시에서 溪翁事가 舌耕(教育)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혔다.

그는 42세 때 강원도 암행어사로 나가서 소시적에 함께 공부하고 妻姨從 동서간인 원주교관 金士文(柏巖 金功의 父)을 만나 둘이 함께 산중에서 교육과 학문하는 일이 좋지 않느냐고 권한 일도 있다. (思君坐

14) 內集·卷一, 葉 28, <東岩言志>(一)

15) 續集·卷一, 葉 28, <東岩言志>(二)

16) 詩僧은 詩佛을 바꾸어 쓴 말, 王維와 같이 불교에 빠진 浪人이 되거나 李白과 같이 詩仙 行勢를 하는 것

17) 內集 卷一, 葉 27, 『晨至溪莊偶記東坡新城途中詩用其韻』

敎同襟樂 祇在山中耦舌耕)

퇴계가 교육에 대하여 이렇게 집착한 까닭은 어디서 그 연원을 찾아야 할 것인가. 그에겐 뿌리 깊은 요인이 있었던 것이다. 無師 篤(獨)學으로 험난한 수학의 길을 걷기도 했지만 그가 ‘계옹사’로 표현한 자신의 일생 사업으로 교육을 정한 데는 큰 이유가 있지 않으면 안된다.

## (2) 書堂敎育의 執念

퇴계가 교육에 집념을 가지고 서당교육을 하여 스스로 참 교육자가 되고자 한 데는 불행한 자기의 청소년기 수학 과정도 있었지만, 어머니가 그에게 준 더 큰 영향이 있었다. 세간에는 모부인의 지엄한 교훈 때문에 一縣監으로 벼슬을 그만 두고 학문을 일삼았다는 말로서 부모 교육의 전부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퇴계는 살아 있는 어머니의 가르침도 일평생 지키려고 애썼지만,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 아버지가 남긴 사업을 한평생 노력하여 끝내 성공한 것이다. 퇴계의 생애는 효의 실천으로 일관된다. 철이 들어 모친한테서 부친의 유언을 듣고 자기가 그것을 이루어 내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어머니에게서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무남독녀의 딸로서 남의 재취로 시집와 33세에 喪夫를 한 퇴계의 모친 춘천박씨부인은 전처에서 난 2남 1녀와 소생자 5인(첫 아들을 일찌기 잃음)을 키우고 혼인시키며 분가와 큰 집을 돌보는데 겪은 풍랑과辛苦는 추측하기에 충분하다. 퇴계가 났을 때 큰 형(伯兄 潛)만이 혼인을 하였고 어린 퇴계는 어머니를 통하여 아버지를 익혀 나갔다. 아버지 대신 어머니로부터 家敎를 받은 것이다. 뒷날 그가 적은 부친의 행장초에 아버지가 뜻한 일과 행의가 반영되는데 여기 의미있는 두 가지 사실이 담겨져 있다. 퇴계가 죽기 전에 부친의 墓碣文을 기대승에게 받아 좋은 돌(영주 돌이 질이 나빠 예천 돌로 다시 새김)을 바꾸어 가면서 자신의 貴로 높아진 贈職을 손수 써서 改碣한 것으로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지만, 술을 심고 조성해서 교육을 한 것은 부친이 이루지 못한 세업(上溫溪에 술을 심어 가꿈)을 성취시킨 것이다. 自古及今 퇴계

의 서당 교육은 주희의 백록동 교육에서 시사받았고 또 주희의 교육을 모방했다고 보지만 퇴계가 쓴 부친 이식의 <先府君 行狀草記><sup>18)</sup>를 읽어보면 그러한 단정이 허구이고 그런 논리가 오래 지속된 데에 놀랄 뿐이다.

퇴계의 부친 성균진사 埴(1463년 세조9, 계미~1502년 연산 8년, 壬戌)은 퇴계가 난 이듬해 40세의 단명으로 죽었다. 소과 다음 해에 病歿한 것을 보면 무척 병약했던 것 같다. 그는 생시에 건강 때문인지 선대의 家學을 전승하기 위해서인지

雙溪合流于前 雲山環繞 可爲盤旋之所 指以謂所親曰 苟餘終不遇於世 當就此築室以處 聚徒授業 亦可以不負吾志矣<sup>19)</sup>

‘내가 끝내 세상에 출세하지 못하면 여기(영지산 뒷줄기, 시냇물이 합치는 곳, 지금 거기 송림이 우거져 있음)에 집을 한 칸 마련하고 글 읽는 생도들을 모아 글을 가르친다면 내 뜻을 저버리지 않게 되리라.’

라고 친한 이<sup>20)</sup>에게 그의 의지와 사업을 밝혔다. 남들에게는 깊은 뜻을 다 드러다 보일 수가 없었겠지만 부인과 형제 사이에는 말할 수 있는 일이다. 퇴계의 어머니 박씨부인은 일찍이 세상을 떠난 부군의 이루지 못한 사업을 아들들에게 죽은 가장을 애모(哀慕)할 때마다 떠올려 반복하였을 것이다. 그 말을 들으면서 자란 퇴계의 가슴에는 굳은 결심과 함께 아버지의 교육자상과 ‘築室以處 聚徒授業’하는 광경을 머리 속에 그렸을 것이다. 그렇게도 교육에 뜻을 둔 아버지가 자기의 자람을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으니, 남에게 글을 배우거나 절간을 찾아

18) ① 續內集, 卷 66, 葉 25~28, 《陶山全書》 pp.400~401.

② 前揭拙著 pp.21~25.

19) 前揭拙著, 《退溪家年表》, pp.21~31, 父親 事錄

20) 所親을 ‘친한 이’로 옮겼지만 이것은 부인에게 한 말일 것이다. 이러한 사업은 험오스런 일이고 겸손한 사람으로서의 남인 아무에게나 할 말이 아니므로 평소 부인에게 그 뜻을 전했다고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다닐 때마다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서당을 지어 나를 가르쳐 주셨더라면’하는 애통과 그리움으로 추모하였을 것이고, ‘아버지가 못하신 일은 내가 꼭 이루어서 위안해야지’하고 굳게 굳게 다짐했을 것이다. 그런 금회가 그 뒤의 행적에 드러난다.

퇴계의 교육과 서당 조성 사업은 그 연원이 이에 있는 것이며 효로서 승계한 가업인 것이다. 이룩하지 못한 부친의 사업을 성취해 놓았기에 퇴계가 만년에 행장을 초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부친의 유한을 거기 썬 넣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자기가 이룩하지 못하였다면 죄스러워서 또 또는 후생에게 짐을 떠 맡기는 일이 되겠기에 감히 쓰는 데 주저하였을 것이다.

### (3) 公教育의 改革 意志

퇴계는 23세 때 성균관에 유관한 일이 있다. 퇴계가 생각하던 공부하는 곳이 아니었다. 墮落된 유생들은 언행과 예절을 바로 하는 그를 보고 오히려 비웃었다. 그는 2개월만에 하향해 버렸다. 뒷날 퇴계의 말을 들은 제자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滉年二十三 居官下齋 心中所存 不能不見於外 人多惡之目之 以做許多模樣 謗議不已 居二朔而出來<sup>21)</sup>

퇴계는 뒷날 아들, 조카, 손자들에게도 이때의 경험담을 자주 들려주었다. 성균관에 대한 그의 인식은 학문과 사람을 기르는 곳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 뒤 소과를 치루려 상경하였으나 방을 아니보고 돌아오기까지 하였다. 최고의 교육 기관이 인간교육과 학문하는 곳이 아님을 안 그는 士者로서 과거는 보아 소속을 가지되 출사(벼슬길 나감)는 아니 하리라 마음 먹었다.

문과 초시를 마친 32세 때 곤양(현 사천)군수 灌圃 魚得江으로부터

21) 拙著, 《退溪家年表》 p.52.

연락이 왔는데 곤양, 진주를 거쳐 지리산까지 遊山하자는 것이었다. 30여 세나 위인 군수의 초대를 받고 물리치지 못하여 의령 처가, 함안과 창원의 두 종매가를 거쳐 어관포가 기다리는 곤양으로 갔다.<sup>22)</sup>

관포 어옹은 자작 <東州道院十六絶>을 내놓고 차운을 하라고 하였다. 퇴계가 차운을 하였고 그 시를 통하여 곤양에서도 <道院>을 계속하도록 권하기까지 하였다.<sup>23)</sup>

동주는 오늘날의 영해이고 관포가 33대의 군수로 가 관아에서 교육을 하었는데 그것이 도원이다. 퇴계가 후일 도원이란 말을 이따금 썼지만, 이 때 그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다. 지방 군수는 행정관이므로 교육에는 힘을 기울일 수 없다고 믿은 그로서는 벼슬길에 나가도 도학과 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옹의 행적에서 찾아낸 것이다. 지방에는 관학 공교육 기관인 향교가 있고, 또 교육을 맡는 사람(훈도, 교관, 교수)이 따로 있다. 그런데도 어군수는 도원을 차려 교육을 했고 동헌 마당에 매화를 심어 도학자적 생활을 겸행한 것이다. 퇴계가 풍기군수 재임중에 소수서원에서 주세붕이 지은 常享祝文, 陳設圖, 笏記를 개정하고, 사액, 사서를 받아서 교육을 한 것<sup>24)</sup>과 일맥이 상통한다. 순흥에는 향교가 있고, 공교육이 실시되고 있었다. 주세붕이 백운동서원을 마련하고 떠난 지(周愼齋는 離任後 成均司成, 弘文直提學, 都承旨, 戶參을 거쳐 黃海監司로 가 있을 때<sup>25)</sup> 퇴계가 부임함) 8년만에 부임했지만 尊賢은 있었고 養士의 기능은 충분하지 못하였을 때이다.(愼齋가 1541년에 부임해서는 방을 거리에 내걸고 오류를 강조했으며 소학을 배우도록 布教하고, 삼강행실의 구두(句讀)를 고쳐주며 학

22) 拙稿, <癸巳南行錄의 退溪 平生事的 意義>, 檀國大學校 附設退溪研究所刊《退溪學研究》 第5輯, 1992年.

23) 別集, 卷一, 葉 3~6. 이 밖에 癸巳年 33세 때에 退溪는 南行을 하면서 109首를 지어 南行錄이라 이름하였는데 內, 別, 外, 續, 遺集에 散載되어 있다. 筆者가 16首를 除外한 92首를 찾아서 1991년에 吟成年代順으로 改編한《退溪詩大全》 33세 篇에 附었다. 1992年 8月 發行.

24) 拙著, 《退溪家年表》 p.195, 同 p.216

25) 周愼齋年譜:51세 乙巳(1545)年條부터 55세 乙酉(1549)年條까지

생에게 학예를 권장하였다. 다음 해에 문묘를 건립하고 백가서를 비치하고 학전을 두는 등 일을 추진하다가 1545년에 성균사성으로 이임함.) 어떻게 보면 공교육을 무시한 越權 행위 같은 일을 퇴계가 시작한 것이며 狀啓를 올려, 額·經書를 하사 받기까지는 용기와 결심이 어지간하고는 추진하기 어려운 일이다. 물의가 없을 수 없는 일이었다. 세 번의 사직서를 올려도 감사가 들은 척도 아니하므로 떠나버렸다. 감사의 노여움이라 할까 시기하는 마음이 적지 아니 있었으므로 필경에는 棄官 이직하고 만 것이 아닌가 싶은<sup>26)</sup> 우여곡절을 상상할 수도 있는데 서원에서의 교육은 퇴계로 하여금 벼슬(관리)을 벗어 던지게 한 원인 중의 근원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교육을 할 수 있었다면 더 견뎌낼 수도 있었고 뜻을 펴려고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공인이 사교육을 한다는 모순과 갈등 속에서 관리생활은 그만 두고 교육의 길을 걸은 것이 이 때의 퇴계의 바른 모습이라 생각된다.

고향으로 돌아온 퇴계는 무리를 하면서도 幽栖處를 바꾸어 세번째 계상에 자리잡고 한서암을 지어 靜習堂이라는 당호를 붙이고는 설경을 시작하였고(50세:庚戌)<sup>27)</sup> 집은 좁고 찾아오는 문도가 많아서 부득이 잇달아 溪上書堂을 지어 순흥에서 하던 사교육을 계속해 나간 것이다.<sup>28)</sup> 그는 사교육에 뜻을 펴기 위해서 벼슬에서 풀려나야 했고 의욕을 잠재울 수 없어서 퇴관하자마자 교육 사업을 즉각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퇴계가 출사하고자 한 지방 고을로는 청송, 고성, 정선, 흡곡현 같은 산간 벽지가 있는데 건강과 모부인의 가르침도 쫓을 뜻이 있었지만 지방관장으로서 政敎를 병행할 수 있는 도원에 더 매력을 느꼈으리라 본다. 어관포의 동주도원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26) 拙著, 《退溪家年表》 p.208, 49세 9月條, 同 p.216, 19行~24行

27) 年譜, 50歲, 庚戌條

28) 詩. <龔岩先生來臨溪堂:溪西茅屋憶前年 溪北今年又卜遷 第一光華老仙伯 年年臨到萬花邊> 辛亥, 內集 卷三, 葉7. 拙著, 《退溪家年表》, pp.249~251. 詩<清明溪上書堂二首小注(撤寒栖 移構小堂於溪北 次老杜韻)> 辛亥. 內集 卷二, 葉5~6.

퇴계의 33세의 행적은 교육과 매우 인연이 깊다. 남행에서는 사교육의 가능성을 보았다면 그 해 4월말에 상경하여 7월초에 하향하기까지의 2개월 동안은 공교육의 부패와 학도의 타락상을 생생하게 체험한 때이다. 河西 金麟厚만이 퇴계와 뜻이 맞았고 도학으로서 교제를 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葵花>, <泮宮>, <月下自酌>, <樓上小集> 등의 시를 읊고 하서와 안타까운 이별을 하고 두번째 겪은 성균관의 공교육의 비리와 퇴폐를 벗어나서 낙향한다.<sup>29)</sup> 이 때의 퇴계 모습은 하서(퇴계보다 9년 아래)의 다음 시가 잘 그려내 놓았다.

夫子 嶺之秀 李杜文章 王趙筆.

선생님은 영남에서 뻐어난 선비  
문장은 李白과 杜工部 같고,  
글씨는 王羲之와 趙孟頫입니다.<sup>30)</sup>

퇴계와 하서를 유생들은 顔子가 되려고 저러나 하고 비웃었지만 하서만은 퇴계를 ‘夫子’로 대접하였다. 9년 하의 하서와 교의를 한 퇴계가 최초로 받은 부자 칭호이다. (후세에 星湖 李瀾과 중국의 梁啓超가 夫子라 하여 책명과 시에다 썼음)<sup>31)</sup>

그 후 퇴계는 몇 번 대사성에 임명되어 學田을 넓히고 기강을 바로 세우기에 애를 썼다. 53세 때의 대사성 시는 교육자와 학생에게 ‘諭四學師生文’을<sup>32)</sup> 시달하여 국가 공교육의 본령을 논하였고, 공교육의 목적을 曉諭하기도 했다. 오늘날에도 되짚어 볼만한 가치 있는 논문이다.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단기간으로 성균관 勤務를 마치지만 그의 교

29) 拙著, 《退溪家年表》, pp.65~69.

30) 《河西先生全集》附錄 卷三 年譜·<癸巳先生二十四歲 遊泮宮與退溪李先生講學 時經己卯土禍 土氣沮喪 諱言道學 而先生一見退溪 深相契合 源源講磨 甚有麗澤之益 先生以詩贈別 有夫子嶺之秀 李杜文章王趙筆之句>

31) 星湖編《李子粹語》序文과 跋文(安鼎福 選), 中國版 聖學十圖贊 梁啓礎의 詩 <嶽嶽李夫子. 繼開三百載>

32) 年譜, 53歲條. 拙著, 《退溪家年譜》pp.287~288.

육 개혁의 의지는 좌절되지 않았다. 말년(기사, 1569)에 올린 《聖學十圖》와 筭進으로 과거중심의 공교육이 성학(학문과 인간중심)을 하는 참 교육으로 그 모습이 바뀌어 갔으나 그것은 그의 20년 서당교육의 경험에서 얻어진 결정이라 하겠다.

### Ⅲ. 教育對象과 그 擴大

퇴계가 최초로 만난 문인은 6살 난 妻姨從 4촌 張壽禧(號·果齋)이다. 19세 때 영주의원으로 의학강습을 받으러 갔을 때 그를 본 朴承健은 《小學》을 읽었느냐고 물었다. 퇴계의 언행 學止가 《小學》과 일치하였기 때문이다. 퇴계의 학식이 남에게 보였다기보다 體履가 돋보였음을 이 고사는 말해 준다. 그의 인격이 약관 때부터 남의 모범이 되었다. 그래서인지 초기의 퇴계 문인은 모두 家人들이다. 퇴계는 위로 형이 다섯 있는데 다섯째 형 외에는 모두 무후하여 조카와 姪壻, 종손자, 생질, 종질과 누님의 사위, 형제와 외손자, 질녀의 외손자까지 모두 와서 배웠고, 성취하고, 살림사는 일까지 도와주는 처지가 되었다. 나중에는 門中の 靑少年이 몰려 왔고 인아 척당의 아들들까지 와서 배웠다. 그 수는 120명에 가깝다.

퇴계는 선대까지는 입신양명을 교육 지표로 삼았지만 그에 이르러 가학의 중심 목표를 성학에다 두고 修身十訓을 정하여 교육하였다. 그러나 가정교육의 근간은 조부(繼陽, 號·老松亭)와 숙부의 가학 승계에서 조금도 이탈하지 않았다. 그에게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차츰 지역이 확대되어 안동, 봉화, 영주, 영덕, 청송, 예천, 상주, 성주, 선산, 금릉, 의성, 영천, 달성, 경주, 의령, 창원, 산청, 거창, 밀양 등지로부터 학도가 운집하여 나중에 손자들 교육은 그들의 외숙부에게 맡기는 형편이 되었다. 서울에 있는 동안에도 대과를 하고 입문한 고봉 기대승 같은 이가 있지만 공직 재임중이나 同官 僚友의 여러 자제가 와서 배워 가는



가 하면, 시골의 아들, 조카들은 오히려 이런 기회에 서울까지 식량을 날라와 講學을 베풀 때에 동참하곤 했다. 집안 젊은이의 교육은 뒷전에 밀려 직접 청강을 못하고 問目(편지에다가 질의 항목을 적어 해답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의를 대신하기도 하였다.<sup>33)</sup>

溪上書堂을 열었을 때는 서울의 金就礪·李國弼, 충청도의 李堯臣·申滉, 경기도에서(강릉이라고도 함) 李珥 등이 찾아와 배웠고, 도산서당에는 전라도에서 李咸亨, 朴光前, 卞成振, 梁子徵, 尹剛中, 尹欽中, 尹端中 兄弟, 江原道(江陵)에서 崔雲遇 같은 이가 와서 배웠다. 지역적으로는 이와 같이 마을과 가문에서 출발하여 같은 현내와 안동부까지 넓어진 후 경상도는 물론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퇴계의 교육 志標를 사회 개혁으로 본 학자 가운데는 지도 계층의 5% 정도인 사대부가 자제를 교육하면 윤리 도덕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믿고 사대부가 자제 교육에다가 주안점을 두었다고 논하기도 한다.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퇴계의 교육 결과를 다른 시각으로 보면 직접적인 면과 간접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의 교육 대상은 어느 계층이거나 일부가 아니었다.

治工 裴純은 당시 천민으로 대접받는 대장장이지만 퇴계는 그의 행실과 효심을 높이 사 가르쳤다.<sup>34)</sup> 또 인제는 하늘이 내리는 것이라 하여 적서를 가리지 않았다. 問徒錄에는 거의 빠져 있으나, 李全仁, 權應仁, 金謹恭 같은 분은 모두 남다르게 중대한 사람이다. 김공은 그 행위와

33) 拙稿, <退溪의 子弟觀>, 檀大研究所刊, 《退溪學研究》, pp.279~305.

34) 拙著, 《退溪家年表》, pp.216~217, 年譜補遺와 碑文原本 참조 裴純은 소수 서원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스승을 오래 모시지 못한 안타까움 때문에 鐵像을 만들어 놓고 계속 글을 읽다가 퇴계가 죽은 후는 鐵像을 모시고 3년상을 입었다. 뒷날 그를 기려 李堉 군수가 군민과 힘을 합하여 기리는 비를 세웠다. 지금도 그 정려각은 영풍군 순흥면 배점리 과원안에 서 있다. <필자가 1987.7.19에 답사하여 찾아내 보고했음. 도로 확장공사로 埋沒 직전에 이르러 군민과 관계관들이 移建을 추진하고 있음> 1992.2.19에 裴公의 墓와 三切 斷된 묘비도 찾아내어 封塋과 豎石을 추진중임.

※1992년 11월 21일 이견 낙성.

견식을 인정하여 손자 安道를 불러서 김공에게 보내어 從遊시켰고,<sup>35)</sup> 권공은 詩才를 높이 사 많은 시를 차운하고 斤正해 주었으며,<sup>36)</sup> 이공은 효행을 기려 선대의 저술을 감사와 국왕에게 알리는 일을 가르쳤을 뿐 아니라 후세에 전승케 했고 그로 하여금 子職을 다 할 수 있게 도왔다.<sup>37)</sup>

퇴계는 유가 자제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다. 많은 승려가 와서 시를 받아가곤 했지만 惠忠이나 靜一 같은 사람은 직접 대하여 人間行義를 배우고 갔고 眞生(중인 계급이었음)과 하인도 인륜을 지키게 가르쳤으며, 그들이 찾아왔을 때 천한 사람이라고 下待한 일이 없었다. 언행록을 보면 준비귀천 없이 누구든지 오면 먹여 보내고 방안에 앉아 맞이하고 보내는 일이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글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회 모든 계층을 그의 교화 순풍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증거가 된다. 특히 그가 鄉坐法을 정하여 고을(鄉黨)에서는 나이를 따져 자리를 정하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예우를 주장하였다.<sup>38)</sup> 반대 세력에 부딪쳐 시행에 힘들었지만 향민을 모두 덕으로 감싸서 대동세계로 이끌어가려는 교육의 한 방안이었다. 그래서 안동에서는 퇴계의 얼굴을 보지 못한 하인들이라도 ‘퇴계선생’하고 존모했다 한다. 교육의 대상을 직접 면전에서 수강한 사람에 한정하지 말고 간접적으로 풍화를 받은 사람까지 염두에 두고 살펴볼 일이다.

퇴계가 생각한 교육 대상중의 중심 부류는 공직자이고, 공직자의 개혁점은 관폐 제거에 있었으며, 실천을 통하여 방법을 시범했다. 그는 또 민폐를 끼치는 일을 절대 아니하였다. 허다한 실례를 다 들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여기 제시한다.<sup>39)</sup>

35) 拙著, 《예던길》 p.193.

36) 《松溪集》, 卷 5 葉 26.

37) 拙著, 《李退溪家書의總合的 研究》 pp.903~904 附錄 門徒錄 後篇. 李全仁과 權應仁 條.

38) 李佑成, <退溪의 鄉坐法>, 第21回 國際退溪學會 모스크바 發表論文稿本 pp.76~103.

39) 拙著, 《李退溪家書의總合的 研究》 4章 3節 三. 出仕官弊, 同6章2節 一~四 全

벼슬이 승진되어 상경하는 퇴계를 예안현감은 전송과 영접을 할 수가 없었다. 서울에 입성할 때도 누구의 마중을 받지 않았고, 귀향할 때도 남모르게 배를 사서 타고 한강을 건너 봉은사에서 쉬었다. 예천에서 공조판서 임명을 받았으나 병으로 상경치 못하고 되돌아왔다. 안동부사와 판관, 풍산현감의 마중을 사전에 막았는데도 기어이 나온다는 소문을 듣고 봉정사로 들어가 요양하였다. 안동 밖의 安奇察訪으로 있는 아들의 출영과 侍病도 막았다. 언제 王使가 닥칠지도 모르는데 공인이 사사로운 일로 자리를 비워서 안된다고 가르쳤다. 하인을 절로 보내 侍病하려는 것도 금했다. 公僕을 사가 일로 쓰는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오늘날의 장관들 행차와 견주어 보면 퇴계의 지엄한 준법과 깨끗한 기강의 실천은 너무도 바보스러울지 모른다. 현직 판서인 퇴계의 이 행위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안동의 관리교육만을 의식한 그의 행위는 아닐 것이다. 서울에서 登廳할 때 사람이 끄는 수레는 타지 않고 말을 빌어 탔다. 이것이 퇴계의 인권존중사상이다. 서당 앞을 下馬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을 중(靜-)이 잡아오려는 것을 말했다. 그림 속의 인물 같아 고맙지 않느냐고 가르쳤다. 이런 일들을 모든 공직자와 권력을 가진 자가 인본적 이면서도 기강을 세워 가도록 그가 시범을 보인 것이리라.

중국에서 오는 사신을 맞을 영접사로 뽑혀 상경은 해야 하겠고 흰옷이 없어 걱정이었다. 현감이 소문을 듣고 지어 왔는데 관물로 만든 옷을 입을 수 없다고 물리치고 현 도포를 빨아서 기워 입고 상경했다. 단양군수를 퇴임할 때는 수석 두 개만 가지고 왔다. 官田에서 거둔 삼(麻)이니 군수 짓이고 전례에 따라 이임 때는 가져가는 것이 통례라며 죽령 고개까지 관노가 지고 온 것을 돌려 보냈다. (《言行通錄》, 辭受之義 第1條) 풍기군수를 그만 뒀을 때는 책궤에 책을 넣어 왔는데 책은 내 것이지만 궤는 풍기 고을 것이라며 되돌렸다. (同, 居官之道 第5條) 아들 봉화현감이 선물로 받은 감 한 접을 본덕에 보낸 것을 가난한 고을에서 쓰라고 환송했고, 그 곳 노인들이 성주 부친에게 대접한다며 은

部. 《退溪先生言行錄》卷三. 居官條 參照.

어를 보냈는데 그 곳에서는 은어를 잡을 수 없을 뿐 아니라 城主를 섬겨야지 가족까지 돌보는 것은 불의라면서 봉화가 나의 배와 입을 더럽힌다고 환송하였다.(家書) 퇴계의 이러한 실천 수범은 명성을 얻기 위해서나 출세를 위한 행위가 아니다. 관속의 부패와 사림의 非儒的인 행위를 계도하고자 한 그의 교육의 한 방법인 것이다.

민폐를 끼치지 않은 예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들자. 上溪 寒栖庵에서 살았을 때의 일인데 모내기 철에 비가 오지 않아 모를 낼 수 없는 심한 한발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을 막아서 넣으면 이녓 논에는 모를 낼 수 있었다. 下溝의 바드랫들(東岩養眞庵이 있는 아래쪽 들판)은 한 여름에 장마가 지면 조(粟)나 메밀을 갈아도 농사가 되지 않는 무논(水畝)이다. 이를 걱정한 퇴계는 아랫 마을의 들을 생각하여 윗쪽의 이녓 논을 그 해는 밭으로 밭곡식(田穀)을 뿌렸다.<sup>40)</sup> 담장을 넘어온 가지에서 떨어진 알밤(밤)을 심부름하는 아이가 주워 먹을 까 염려하여 손수 주어서 그 집으로 던져 준 이야기는 서소문에 살 때의 이야기이다.<sup>41)</sup> 전적에 적힌 실예는 허다하지만 약하거니와 이들 행위는 그가 강의아닌 생활 실천으로서 국민을 지도하는 교화의 한 측면인 것이다.

조정의 중신과 홍문관의 학자도 그의 교육권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68세 때의 겨울에 《聖學十圖》를 만들어 왕에게 바치고서 이듬해 봄에 사임 귀가하였다. 십도를 통하여 성왕학을 배우라고 선조에게 부탁하고 병풍을 만들되 글씨 잘 쓰는 사람을 시켜 淨書粧幀한 후 항상 읽으며 관계 기관에 하명하여 강의를 받으라고 陳啓를 하고 떠났다. 선조가 홍문관의 학자를 불러서 강의를 시켰지만 아무도 할 수가 없었다. 퇴계가 아니면 지금 朝臣으로서 학문이 알아서 進講을 못한다고 아뢰었다.

40) 《言行通錄》卷 3, 葉 16, 第 7條 「溪流引十里外……其推怨及物如此」<良齋 李德弘, 記善錄>

41) ○ 宣祖修正實錄 卷 4, 庚午 12月 甲午 「其僑居漢城 隅家有栗樹數枝過墻子熟落庭 恐家僮取食 每自手拾投之墻外 其介潔如此」

○ 栗谷日記: 《言行通錄》卷 5, 葉 41, 雜記 第 6條

이미 떠난 퇴계는 돌아올 수 없고 그 후 학자들은 유학의 정수를 체계화한 이 십도의 연구에 골몰했고, 그로부터 학문다운 학문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선조는 進講을 받았고, 印刊하여 모든 관청에 돌려 공부를 시켰다. 그 해 9월에는 各官廳에 頒賜를 하게 되고 柳成龍에 의하여 중국 북경까지 頒傳하기에 이르렀다.<sup>42)</sup>

퇴계가 왕에게만 성학(제왕학)을 가르칠 의도였다면 봄에 내려가지 않고 몇 달 동안 가르쳤으면 될 일이다. 선조가 나이 어려서 이해할 수 없으면 특히 성리학에 뛰어난 高峯 奇大升, 栗谷 李珣, 思庵 朴淳, 靜存齋 李湛, 潛齋 金就礪, 鶴峯 金誠一, 西厓 柳成龍 같은 문인에게 가르쳐 놓고 내려가도 안심할 수 있다. 出刊 과정의 기록을 보면 고봉은 印刊된 것을 교정할 수 있었고, 楷粧은 잠재가 할 수 있었으며, 그 십도가 理訣의 집대성임을 서애와 학봉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十圖 製進은 선조 초기의 학풍을 개혁하고자 한 퇴계의 의도적 계획인 것이었다. 과거와 문장 중심(製述爲主)의 교육에서 학문(퇴계의 학문의 개념 속에는 생활이 중시됨. 天山齋 李咸亨의 夫婦生活을 바로 잡은 書札에 분명히 나타남) 중시의 교육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이 십도 강의의 문제로서 만들었다. 십도는 그 뒤에도 역대 왕조가 여러번 간행하여 교육의 자료로 삼았다.<sup>43)</sup> 퇴계가 ‘나는 나라에 보국하는 일을 이로써 다한다.’(吾之報國 至此而已)고 한 말을 율곡이 기록하여 후세에 전했지만,<sup>44)</sup> 그의 교육 대상은 그 시대의 군왕, 朝臣에 한정된 것이 아

42) ○ 年譜, 68歲, 己巳 十二月條, 上聖學十圖 并筭子

○ 栗谷日記. 《言行通錄》卷4, 葉 14, 出處之義 第 34條

○ 蒙齋錄. 同上 第35條

○ 堂後日記. 同上 第36條

○ 拙著, 《退溪家年表》, p.536, 11月 16日條. p.553, p.559, 9月條

○ 同上 p.560, 10月條

○ 拙稿, “聖學十圖의 中國頒傳.” 慶大退溪研究所刊《韓國의 哲學》, 第17輯

43) 琴章泰, <聖學十圖註釋과 朝鮮後期 退溪學의 展開>. 《退溪學報》第48輯 pp.6~22.

44) 前揭 栗谷日記. 《言行通錄》, 卷 4, 葉 14, 出處之義 第34條

니고 먼 훗날까지 이어진 것이다. 오늘날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들은 유교 철학을 알기 위하여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 미국의 칼튼(《聖學十圖》를 翻譯出版하여 概念을 定立함)이나 중국의 張立文(十圖研究에 專念), 일본의 高橋進(敬哲學論을 세움)은 그 대표적 인물이다.<sup>45)</sup>

#### IV. 書堂教育의 展開와 制約

##### (1) 溪上書堂 設立

앞에서 조금씩 언급이 이미 되었으므로 여기서는 간단히 논하기로 한다.

계상서당은 필자가 《燕居와 思想形成》에서 처음으로 세상에 그 존재를 밝혔고, 유적 탐색 보고는 그 전에 이미 하였다. 퇴계시를 연구하다가 ‘溪上書堂’과 ‘溪堂’을 시제로 읊은 시를 읽고 일련의 시를 분석한 끝에 遺址를 찾아낸 후 발표하였다. 도산서당 교육이 1561년초에 시작되어 1570년에 끝났으므로 10년간 한 것으로 종래는 믿고 있었다.

그러나 퇴계의 서당교육의 시작은 풍기군수를 그만두고 돌아와서 계서에 한서암을 지어 定居한 이듬해부터였다. 龔岩이 이 서당에 왔을 때 퇴계가 읊은 시에 그 연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溪西茅屋憶前年 溪北今年又卜遷

시내 서쪽에 띠집을 지은 것은 前年이었는데,  
시내 북쪽으로 今年에 또 집 지어 옮겼네.

‘前年’은 1550년이고 ‘今年’은 1551년이다. 계서는 한서 자리이고 계북은 집앞 시냇가 남쪽으로 흐르는 북쪽 끝인데 임성대의 뒤인 초당골이다. 그 곳은 여지껏 초당골로 불리어져 와서 서당이 있었음을 유래한

45) ○ 칼튼의 《聖學十圖》 英譯本

다. 이 밖에 서당의 위치라든가 그 상태에 대해서는 시제와 小注 등으로 충분히 추적할 수 있다. 온돌이 없고 石牀, 蒲席에다가 송·죽·매·국과 연을 심은 方塘이 있고, 자기를 합하여 六友園으로 한 사실이나 문인의 연보를 통하여 입문한 사람도 열거할 수가 있다.

清明溪上書堂一首 <辛亥(1551)正月, 內集 卷二, 葉 5~6>, 溪堂前方塘微雨後作 <壬子(1552), 內集 卷二, 葉 13>, 正月二日立春<壬子, 內集 卷二, 葉 11>, 立秋日溪堂書事三首 <丙辰(1556), 內集 卷二, 葉 32>, 小注·撤「寒栖移構小堂於溪北次老杜韻」, <內集 卷二, 葉 56>, 李秀才珥字叔獻 見訪溪上雨留三日, <戊午(1558), 別集 卷一, 葉 75(外 7首)> 등으로서 그 존재와 지은 시기가 명확하게 들어나 있다.

이러한 시제와 시의 내용은 생략하고, 줄지의 《燕居와 思想研究》 및 《退溪家年表》의 참조를 감히 부탁하면서 퇴계가 계상서당을 지어서 이룩하고자 한 일을 살펴보기로 한다.

‘有嘆’<sup>46)</sup>이라 題한 시에서

今世何人第一流	脊梁硬鐵擔千秋
須知少味還多味	若道無愁轉有愁
謝 <sup>47)</sup> 透利關緣事洛 <sup>48)</sup>	胡 <sup>49)</sup> 明物漬爲從涪 <sup>50)</sup>
自憐半白無歸仰	依舊人間寂寂儔 <sup>51)</sup>

이 세상에 어떤 사람 제일가는 도학자 나타나서  
斯文 받칠 선 기둥되어 千古의 聖教 맡아줄꼬,  
모름지기 맛 없는 게 도리어 맛있는 줄 알았는데,  
근심이 없음을 말하려 하여도 오히려 근심은 더 크기만 하네,  
謝上蔡는 利의 문을 뚫고 나와 정자에게 배워 도를 이었고,

46) 內集 卷一, 葉5 ‘有嘆’.

47) 謝良佐는 程子の 弟子.

48) 程子는 程明道와 程伊川.

49) 胡憲은 朱子の 스승.

50) 譙涪陵은 程子の 弟子.

51) ‘依託한다’는 것은 그를 私淑하고 뒤를 따르겠다는 말.

胡籍溪는 물욕의 어둠에서 벗어나 譙涪陵에 從師하고 도를 주희에게 이었네,  
 애답다 내 나이 선인데도 歸仰할 곳 없으니  
 저 옛날 은거하여서 큰 일을 이룬 그분들을 의탁하리라.

퇴계는 51세 이후 儒道흥기, 국민개조, 철학완성, 도덕회복을 위하여 나설 의지를 명료하게 밝히고 있다. 정자로부터 주자에 이르기까지 이어온 학맥을 개괄하였고, 이제 그 뒤를 잇겠다는 그의 의지를 시로써 다짐하고 세간에 표명한 것이다. 이 같은 歸仰依舊의 大志가 실행에 옮겨진 것이 溪北 물가 초당골에 세운 계상서당이며 設學의 동기였다.

이 서당에서 여러 제자가 수학하였지만 그 중에서 서당 개설 후 도산서당이 서기까지 입문한 문도를 참고로 그 연도와 함께 적어 둔다.

權大器(1551)	金八元(1551)
金守一(1554)	金明一(1556)
金誠一(1556)	權文海(1556)
南夢鰲(1557)	金 堧(1557)
李 珥(1558)	李命弘(1558)
李福弘(1558)	李德弘(1558)
金 瀉(1559)	金就礪(1560)
金士元(1560)	柳雲龍(1560)
李國弼(1560)	李堯臣(1560)

이 서당에서 퇴계의 명저들이 모두 편찬 집필되었다. 도산서당이 완성될 때까지 가르칠 교재를 이 서당에서 지은 셈이다.

## (2) 陶山書堂 造成과 入門 諸賢

### ① 建築略史

1554(甲寅)년에 溪堂이 精舍로서는 미흡하기 때문에 근처를 둘러보다가 紫霞峯 기슭에 몇 間을 짓기로 마음먹었다.<sup>52)</sup>

1556(丙辰)년 봄 문인들이 서재를 마련하여 글을 가르쳐 달라고 간



청하였으나 應諾하지 않았다.<sup>53)</sup> 그래도 문인들은 듣지 않고 진언하였으나 抑止하고 罷議시켰다.<sup>54)</sup> 그 해 가을에 가서 모든 사람이 중지한 줄 알았는데, 오천의 琴應燠(號·勉進齋, 退溪의 며느리의 동생)들이 서당 터를 南溪之南(지금의 서당터)에 잡아놓고 와서 거기 서당을 지어 글을 가르쳐 달라고 졸랐다.<sup>55)</sup> 세번째의 소청이었고 건축할 부지까지 물색(卜地)해 가지고 부탁하는 것이다. 그러나 퇴계는 겸손하게 후생지업을 쇠약한 몸으로 어찌 해낼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 염려하였다. 그리고 겨울을 지냈다. 이듬해인 1557(丁巳)년 3월이 되어 어느 따뜻한 봄날에 퇴계는 문인들이 찾아놓은 그 곳에 홀로 가서 살펴보고는 그 경계의 그윽하고 아름다움에 그만 마음이 끌렸다. 그는 得地 喜悅을 二首의 시로 읊었다.<sup>56)</sup> 시에서 밝혔듯이 장차 이 곳에서 글을 가르치고 학문과 수양할 것을 다짐하기에 이르렀다. 도산의 서당 자리는 이렇게 해서 결정되었다. 퇴계 자신이 卜地한 것이 아니고 金應熏 등 문인들에 의하여 선택되어진 것이다.

다음날 퇴계는 제자 몇 사람과 아들, 손자를 데리고 다시 가서 집을 지어 글을 가르쳐 주겠다고 뜻을 표한 후 <再行視陶山南洞有作示……> 시<sup>57)</sup>를 읊고 마음을 굳혔다. 4월은 태자산과 대방동 등지를 유람하면서 서도<sup>58)</sup> 7월에는 주희의 《啓蒙》에 잘못이 있어서 《傳疑》 大著를 완

52) 溪堂久無主(中略)此堂則卜地未協 固當改移令歸意 欲構精舍數間於霞山之麓 <遺集 卷 5, 葉 14~15, 家書, 寄窩>

53) 此處立齋事 以此尤未安 欲固止之 時未知諸人之意何耳 <同上 卷 8, 葉 6, 家書, 寄窩>

54) 書齋事 吾力止之 今已罷議 是則一幸也 <同上, 葉 6~7, 家書, 答窩 寓西小門內>

55) 書齋已懇諸人而罷之 烏川琴應燠輩 固欲小構終不能止 已排數間於南溪之南, 但才衰倦如此 不能督成後生之業 如是終有何益耶 <同上 葉 7, 家書, 答窩> 陶山書堂의 建築史는 筆者가 밝혀서 1990年 10월에 釜山에서 發表한 일이 있음.

56) 內集 卷 2, 葉39~40;尋改卜書堂地 得於陶山之南有感而作二首……萬化窮探吾豈敢 願將編簡誦遺音.

57) ○ 年譜 · 57歲 丁巳年 3月條 ‘得書堂地于陶山之南’, ○ 內集 卷二, 葉40

58) 年譜 · 57歲 4月條, 四月遊太紫山尋大方洞

성하였다.<sup>59)</sup> 서당을 건축하기 전에 지향하는 교육에 맞는 교재로서 《啓蒙傳疑》를 편찬한 것이다.

이외에도 그는 이듬해(1558년) 4월까지 주희의 서간을 망라하여 주희가 논한 이학과 학문의 진수를 가려내어서 《朱子書節要》를 완전한 專著인 한 책으로 편집 완성하였다.<sup>60)</sup> 퇴계의 면밀한 계획은 이렇게 진행되고 교수할 자신의 강의 요목은 설정되었다. 이학에 대한 학문적 확신을 굳히며 그러한 작업을 통하여 연수와 강의안을 작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기반성을 깊이 하였다. 그가 문인과 친구에게 보낸 서간을 되읽고 자기가 가르치고 주장한 이론을 재정비하였는데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그 해 5월에 편성한 《自省錄》이다.<sup>61)</sup> 이 《自省錄》은 오늘날까지 계속 많은 학자가 연구하는 퇴계 이학의 정수로서 주옥 같이 여기는 명저이다. 이리하여 역학과 주희의 성리론(허다한 논술이 절요에 들어 있음)과 자신의 논문을 묶어서 강의에 임할 태세를 갖추었다.

한편 퇴계는 黃俊良(號·錦溪)의 편지에 답하는 기회에 사학 교육 기관의 학칙으로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주희의 <白鹿洞規>를 변석하여 장차 도산학규의 정립을 강구하고, 다른 한편 <伊山書院記>(사당에 아무도 모시지 않고 假設을 하게 하고 사학을 정리하는 한 방책으로 추진)를 써서 사학의 지향점과 서원교육의 바른 모습이 무엇이라는 것을 은연 중 제시해 두었다.<sup>62)</sup> 그 뿐 아니라 유학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특히 이학이 발달했던 시기의 學理論을 정리하여 《宋季元明理學通論》이라는 巨著를 짓고 역대 선유의 유명한 箴規 81편을 손수 베껴서 《古鏡重磨方》을 편성하였다.<sup>63)</sup> 이것은 학도들에게 유학의 시대 변천過程을 개관하고 당대가 요청한 실학으로서의 학문과 인간완성에 힘쓰

59) 同上·七月 啓蒙傳疑 成

60) 拙著, 《退溪家年表》 p365, 4月條. 年譜·56歲 丙辰 6月條 編次朱子節要成(編次하여 序文을 써 完成하기까지는 1년)

61) 拙著, 前掲 年表. p.365 5月條

62) 年譜·59歲 己未年條, 作伊山書記, 寫扁額及院中規約

63) ○ 年譜·59歲 己未 12月條, 「始編宋季元明理學通錄」  
○ 拙著, 前掲 年表 p.379, 9月條, 「古鏡重磨方 編成」

도록 가르칠 목적으로 편찬한 유학의 중핵이며 통사적 내용의 정수이다.(南彦紀에게 箴銘을 써 주고 編編句句가 모두 실학이라 하였고, 가르침을 잊지 말고 명심하여 실행케 함)

퇴계가 도산서당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그의 명저 대부분을 이 기간에 집필 편찬해 높은 것은, 창조적이고 자주적인 교육 기획이며, 급선무인 倫理 도덕 정신의 회복(실학)을 위한 교육 내용의 선택(교과서 편찬)과 교수요목의 구성(과정의 구성)이었던 것이다.

1558(戊午)년 2월에 이이(23세)의 내방(성주 처가에 갔다가 장인의 인도로 입문함)이 계상서당에 있었듯이 퇴계는 溪堂에서 교육과 저술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 해 6월 소명을 받고 입경하여 10월 대사성에 취임하고 11월에 사직을 하려 했으나 12월에 어필로 쓴 공조참판 임명장을 받았다. 할 수 없이 서울에 머물렀지만 그는 도산 서당 건축 공정에 더 마음이 가 있었다.

1558년 후반기에 쓴 家書에는 서당 건축사에 대한 내용이 많고, 1559년 2월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떠나겠다는 약속까지 하였다. 분황제의 기회를 타려는 결심이었다. 서당건축은 滄浪臺(나중에 天淵臺로 고쳤는데 山門의 동편에 있고 그 대 위에서 낙동강을 내려다 보고 哲理와 자연의 법칙을 연구했음)를 쌓는 일을 가장 먼저 하였다. 집보다 造景을 앞서 시작했는데 그것은 1558(戊午)년 3월이었다.<sup>64)</sup> 이 일은 시작을 해 놓고 棚架도 끝내지 못한채 上京하였다.<sup>65)</sup>

在京中에도 퇴계는 건축공사를 추진하였다. 공사(木工, 造瓦, 土工 등 모든 일)는 그와 친한 용수사의 스님인 法蓮이 맡기로 했다. 蓮僧은 기와를 먼저 굽기로 했다가 집 세우는 일을 앞당기기로 하는 등 번복이 심했지만, 그의 뜻에 일임했다. 퇴계는 목수인 그가 가늠해서 무엇을 우선하든지 내맡겼다. 그는 경주에 가서 건축기금을 구해오는 등 심력을 쏟았다.<sup>66)</sup>

64) ○ 年譜·58年 戊午 3月條, 築滄浪臺 後改天淵……

65) ○ 就中 滄浪棚架 若架椽覆以麻骨 則可經數年……<遺集 卷8, 葉 16, 家書 寄騫(서울로 가는 길에 부침)>

이 때 京鄕과의 연결은 아들인 篤이 하였지만 건축 감독은 李龔岩의 아들인 李文樑(號·碧梧, 平陵察訪을 지냄, 퇴계와는 8촌임)이 맡아 하였다.

서당의 설계도는 퇴계가 서울에서 손수 그렸는데 뒤에 수정하여 다시 그려 보냈다. 그 규모는 川沙(내살메)의 李賢佑의 廣軒을 본으로 했다. 퇴계가 孤山庵에 가 있는 동안 靜一이 자기 뜻대로 지금처럼 조금 크게 지었다.

집터인 밭의 값을 치르고 사서 본격적으로 건축 공사에 들어간 것은 1559(乙未)년초였다. 이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법련이 일을 맡아 시작하자마자 죽어 그에게서 받은 물건을 되돌려 주고,<sup>67)</sup> 사람을 바꾸어서 일을 시켜야 했다. 법련의 뒤를 이어 서당 공사는 靜一에게 넘어 갔다. (그는 서당을 완성한 후에도 문인의 식사를 취사하는 일과 퇴계를 모시는 일을 끝까지 맡아서 한 사람임<sup>68)</sup>) 공인이 변경되는 일 외에도 퇴계를 서울에 붙들어 놓기 위해서 아들 篤에게 벼슬을 주어 상경시키려는 움직임이(洪暹, 趙士秀를 중심으로) 집요하게 진행되었다.<sup>69)</sup> 퇴계는 아들마저 상경해버리면 공사를 누가 돌보느냐고 출사를 극력 말렸다.

결국 퇴계는 2월에 분향제를 지내려 휴가를 얻어 귀향한 후 사직을 하고 머물면서 서당 건축에 힘을 다 쏟았다.<sup>70)</sup> 이렇게 해서 서당 건물은 이듬해인 1560(庚申)년 11월 2년만에 완성되었다.<sup>71)</sup>

66) ○ 蓮僧先燔瓦之計 本爲好矣 然今欲先造成……圖子兩樣 送去 招右僧議定 報來爲佳 <遺集 卷 8, 葉 21, 答窩>

○ 「贈沙門法蓮」詩序와 詩 <續集 卷 2, 葉 21, 戊午>

○ 蓮僧受物 皆已推否 此僧之死甚憐 而吾事無托奈何……他幹僧 又不如法蓮之獨當 <遺集 卷 8, 葉 32, 答窩>

67) ○ 陶山精舍 蓮意欲先造成云 圖子已寫送于汝 更思其圖未盡 更爲圖成于大成處(中略)吾未下去汝又上來 蓮計恐未成 深恨深恨 <遺集 卷 8, 葉 25~27, 家書 寄窩>

68) 拙著, 《예던길》 p.,172, 李令承條.

69) 前註, p.68.

70) 拙著 前揭 年表, p.377, 3月 25日條.

부속 건물은 제자들이 기숙사로도 쓰고 동시에 精舍로도 쓰는 隴雲精舍(마루는 관란헌, 학문을 강론하는 방은 시습재, 잠을 자는 방은 지숙요, 뒤에 부엌에 딸린 이 집은 工夫의 ‘工’자 모양을 한 8칸)가 있는데 이 집은 퇴계의 환갑 해인 1561(辛酉)년에 준공을 보았다.<sup>72)</sup> 퇴계는 공사를 진행시키면서 조원(節友社, 淨友塘, 梅花園, 蒙泉, 天淵臺, 雲影臺, 洌井, 藥圃)을 동시에 만들어 나갔고, 서당, 軒(岩栖軒), 室(玩樂齋), 井, 門, 舍, 齋 등 모든 것에 대한 의미 부여와 만든 목적을 시로 읊었다. (陶山雜詠)<sup>73)</sup> 모든 공사가 끝난 11월에 도산기를 써서 건설전과정을 마무리하였는데 실제의 공사 기간은 3년간이지만 터를 잡아 준공하기까지는 5년이 흘렀다.

이 때부터 도산서당기로 들어간다. 1570(庚午)년 9월의 최후 강의까지 꼭 10년을 이 서당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교육하고 수련하고 사학의 전당으로서 이 시설을 사용하였다, 서당이란 이름을 붙여서 정규 사학 교육을 한 제1기(전기) 계상서당 10년(1551~1560)에 이어 제2기 즉 후기의 60대 교육을 이 곳에서 실시하였다.<sup>74)</sup>

도산서당에 입문수학한 연도가 명백한 제자를 들면 다음과 같다.

康崙, 姜翰, 郭越, 具贊福, 具贊祿, 權東美, 權東輔, 權敏義, 權伯麟, 權宣, 權宇, 權春柱, 權春蘭, 權禧, 琴鳳瑞, 琴纒, 琴應商, 琴應石, 琴應夾, 琴義筍, 琴悌筍, 金恭謹, 金圻, 金箕報, 金樂春, 金得可, 金得礪, 金隆, 金玔, 金命元, 金允欽, 金允明, 金富信, 金富儀, 金富仁, 金富弼, 金生溟, 金成壁, 金晬, 金壽愷, 金壽恢, 金彥璣, 金宇宏, 金應生, 金集, 金廷憲, 金澤龍, 南師古, 南彥經, 南致利, 南弼文, 慮遂, 柳根, 柳成龍, 林芸, 文命凱, 朴光前, 朴遂一, 朴承倫, 朴承任, 朴慎, 朴枝華, 朴雲, 朴濟, 朴雲,

71) 《言行通錄》 卷 3, 葉 19, 蒙齋錄 <庚申 11月 陶山書堂成 自是遇輿輒往或至數月而返……>

72) 年譜 및 拙著 年表 11月條.(p.407)

73) 內集 卷 3, 葉 19, 拙著 年표 pp.392~398.

74) ○ 拙著, 《退溪의 家學과 思想形成》 pp.142~145의 1行

○ 同上, pp.161~165.

朴允誠, 朴濟, 裴三益, 裴三友, 裴紳, 白見龍, 邊永清, 徐仁元, 徐千一, 徐嶮, 孫英濟, 孫興慶, 孫興禮, 宋福基, 申馮, 申演, 申濩, 安克誠, 安霽, 吳健, 吳滂, 禹性傳, 尹剛中, 尹端中, 尹日敦, 尹欽中, 尹興宗, 任鼎臣, 李令承, 李士純, 李碩幹, 李叔樑, 李淳, 李衍樑, 李容, 李元承, 李愈, 李閔樑, 李應, 李楨, 李宗仁, 李中立, 李僞, 李咸亨, 李好閔, 李熹, 張謹, 趙振, 趙摯, 曹好益, 全纘, 鄭崑壽, 鄭述, 鄭士誠, 鄭惟一, 鄭允良, 蔡承先, 蔡應龍, 崔顥, 崔應龍, 黃遂良, 黃應奎, 許進壽, 許忠吉, 洪胖, 洪迪.<sup>75)</sup>

## ② 書堂 教育의 制約

오늘날도 퇴계의 출처에 대해서는 이론이 많고 산림에 은둔하여 몸을 움추리고 자기보신에 힘썼다고 평가기도 한다.

사실은 그 때에도 그러한 비난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70여 회의 辭退 進啓 중에 49회는 允許를 받지 못했다. 자기의 목표를 향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한길로 가야겠지만 퇴계의 事勢는 그렇지 못하였다. 퇴계가 여론을 알고 어전에서 물러나기를 청할 때 그의 입으로 세인이 자기를 ‘山禽野鶴’이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도 그의 평생사업(吾事)인 교육은 입박에도 내지 않고 원래 노열한 인물이며, 병으로 왕명을 받들 능력이 못된다고 아뢰고 물러났다. 기고봉, 이율곡의 완곡한 부탁과 중신들의 만류와 왕의 師傅 현인 대접도 뿌리쳤다.<sup>76)</sup> 퇴계의 궁극적인 목표가 교육을 통한 사회 개혁에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비난과 고초도 대의를 앞세우며 물러났다. 그는 불능자는 그 직에서 물러가야 하고 不職者는 입신할 기회만 노려보지 말고 시골로 떠나가야 한다고 의를 앞

75) ○ 陶山及門錄 上下 卷에서 出生 年度가 記載되어 있는 사람의 授業 年度를 換算하여 1561年 이후의 人物만을 抽出함.

○ 旣注·75.

76) 《言行通錄》, 卷四, 出處之義 58條중에서 堂后日記에서 뽑아 적은 記錄이 많다. 參考하기 바란다. 高·李 두 分의 進言만 적는다.

○ 珥曰 先生若在經席之上 爲益甚大 仕者爲人 豈爲己乎 珥曰 先生在朝 假使無所獻爲 而上心倚重 人情悅賴 此亦利及於人也 先生不肯(栗谷日記)

○ 奇高峯等諸賢 多聚于朝廷 每極言先生道德行義 無愧於程朱 不可不急先招用 爲行道濟世之地

세우며 勇退를 거듭해 부패 관료와 탐욕자를 은근히 깨우쳤다.

조정에 있을 때 金安老, 李芑, 尹元衡, 陳復昌, 李洪男의 척인과 李戡, 李樛 등의 꺾박과 농간은 그를 위협으로 몰아갔다. 李芑의 모해로 장형을 받고 갑산으로 유배되어 가던 도중 미아리에서 죽은 넷째 형 때문에 50대초의 퇴계는 백척간두에 선 몸이 되었다. 그 자신도 사헌부에 근무할 때 바른 말을 해서 파면을 당했고 왜란을 예방할 수 있는 「勿絶倭使疏」를 請乞하고는 반대파에게 큰 미움을 샀다. 그의 安身保命은 吾事요 평생사인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참아야 했다. 또 趙光祖(號·靜庵)가 왕권을 믿고 개혁에 열을 내어 급히 서둘다가 성사하지 못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sup>77)</sup> 우회적이고 느리지만 인재양성과 바른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알았으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길을 가야만 했던 것이다. 그래서 퇴계는 서당 교육을 적극 추진한 것이다.

퇴계가 도산에서 은둔하여 교육에 매진하고 있을수록 시기하고 반목하는 李芑 일당은 그의 聚徒 강학을 이해하기보다는 의심을 더 하였다. 조정에는 신진 사류와 덕망이 높고 청렴결백한 퇴계의 知友가 많이 있었지만 그의 遠志는 읽지 못하였다. 그래서 자리를 높여 자꾸 불러 쓰도록 천거하였다. 어떤 청요직이고 선망의 자리라도 그는 움직이지 않고 도산에 들어앉아 학문과 교육만을 하고 있으니 奸黨의 주목과 꺾해는 더 할 수 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경상감사의 순찰은 빈번하였다.<sup>78)</sup> 거만한 梁成義 같은 이를 현감으로 보내기도 하고 李戡 같은 감사를 查察役으로 파견하기도 하였다. (1559, 己未) 도산서당 설립 전후에 어떤 감사는 사전 통고도 없이 불쑥 나타나서 偵探하기도 했다. 서로 심금이 통하는 친구나 후배도 감사로 부임해 오면 빈번하게 도산을 드나들었다. 그는 言志詩로서 문인

77) 「趙靜庵 天資信美 而學力未充 其所施爲未免有過當處 故終至於敗事 若學力既充 德器成就 然後 出而擔當世務 則其所就未易量也 鶴錄」外《言行通錄》卷 5, 葉 34, 論人物 第15~20條

78) 拙著, 《예던길》, pp. 226~233「(1)監司의 來訪」

과 지방관에게 심정을 토로할 정도로 斥候를 받고 있었다.<sup>79)</sup>

결코 도산 교육이 관의 협조나 목인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관의 감시를 받으면서도 바르게 조신하고 교화를 통하여 향당 풍속을 개조했다. 또 그의 제자들이 벼슬을 멀리하고 서당 교육을 전파해 나감으로써 교화의 지역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차츰 퇴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게 되었다.

퇴계의 본심(벼슬을 멀리한 참뜻)을 중앙에서 알아 준 것은 만년의 일이었고, 퇴계의 참모습(학문과 인격)을 알리는 데 앞장서 노력한 사람은 이율곡과 기고봉을 비롯해서 趙士秀, 許曄, 睦詹, 洪暹, 朴淳, 李浚慶, 沈連源, 宋麒壽, 辛應時, 具思孟, 李俊民, 趙廷機, 李湛, 李元祿, 吳健, 愈大修 같은 인물들이었다.

지기의 벗인 趙士秀, 洪暹과 문인인 기고봉과 許曄 같은 이에게는 자기의 遠志인 교육 사업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을 하기까지 하였다.<sup>80)</sup> 관의 간섭도 컸지만 지인의 이해 부족도 그에게는 도산 교육의 한 저해가 되었다.

## V. 陶山書堂 敎育과 그 影響

영주에는 公劄文 중심의 과거 공부를 전문으로 지도하는 居接이 있었다. 이 거접에서는 인격함양이나 학문이 목적이 아니고 과거에 대비하는 제술 수련이 주였다. 오늘날의 진학지도와 고시학원 같은 성격을 띤 사설학원이었다. 퇴계의 손자 安道도 이곳을 찾아간 적이 있어서 퇴계는 타일렀다. 문장 수련에 전심하는 손자를 나무라기까지 하였다. 그는 경

79) 監司姜士尙 訪先生于陶山書堂 既去明一等卽入謁(中略)一絶云 寒事幽居有底營 藏花護竹衛羸形 慇懃寄語相尋客 欲向三冬斷送迎 此澗言志之作 恐人以我爲薄故 不敢示人 今始出之非薄……《言行通錄》, 卷 3, 葉 26, 交際之道 第6條(姜監司는 1556년에 慶尙道伯이었음)

80) 拙著, 《예년길》 pp.286~287.



학과 《心經》이나 《啓蒙》과 성리서를 중심 교재로 삼아 강의하는데 반해서 집에서는 수험준비 위주의 암기와 작문이 전부였다. 손자가 조부의 교육을 이해하지 못하자 하도 딱해서 다음 시를 보여서 깨닫도록 하였다.<sup>81)</sup>

棄却拈桃樹 가까이 있는 단 복숭아는 거들 떠 보지 않고  
巡山摘醋梨 쓴 돌배 따러 온 산천을 해매고 있구나.

그리고 지각이 앞선 제자(金誠一과 禹性傳)가 와서 《啓蒙》과 《心經》등을 수강할 때는 산사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손자를 불러내어 청강케 하였다.

아들 篤도 부친의 강학보다 영주의 집에 가서 공부하는 것을 원했다. 내심 못마땅하면서도 허락하였다. 篤이 가서 아버지의 가르침대로임을 깨닫고 금방 되돌아 오기는 하였지만 실천 중심의 학문,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도덕교육 즉 지행병진의 학문을 家人들도 처음에는 납득하지 않았다. 종손자가 《古文眞寶》와 史畧을 탐독하고만 있자 나무라면서 입지(聖學에 뜻을 둔)후에 경학을 깊이 있게 파고 들도록 바로 잡아준 것도 그 한 실례이지만 과거를 앞두고 퇴계에게 제술 수업을 받으러 왔다가 퇴계가 과거와는 상관 없는 경학을 중심으로 가르치자 되돌아간 생도가 부지기수였다.

1558(戊午)년에 오담 위 역동 마을에 나가 서원 터를 잡고 禹倬을 모신 역동서원을 창건한 후 강의를 개설하자 鄉内の 문도한테서 생각밖의 부탁이 있었다. 제술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었다. 퇴계는 단호하게 이를 물리치고 서원은 유생이 위기지학(君子儒)을 하는 곳이지 科場수업을 하는 곳이 아니라고 서원 창건의 목표와 사학의 의의를 분명히 가르쳤다.

위의 예화는 1550년대 말경의 우리 나라 교육실상<위인지학(小人儒)

81) 拙著, 《예던길》 pp.196~197, [(5) 講學]

중심>을 보여준다. 성균관 유생의 유학 생활이 교육의 정도에서 벗어나 있었음도 앞에서 간략하게 지적해 두었다. 거점과 관학이 시험 위주, 출세 중심으로 편향화해 있는 것을 바로 잡고자 한 것이 퇴계의 교육 개혁 운동이었다.<sup>82)</sup> 앞에서 기술하였지만 서원의 목적을 처음에는 가까운 향인 문도들도 수용하지 못하였다.

마침 영주의 의원이 계속적으로 강습을 해오다가 유아무야가 되었고, 거점은 문예를 숭상하는데 그쳐, 뜻있는 사람이 걱정을 하던 차 순흥사람 安瑞이 군수로 부임해 왔다. 그는 지난날의 폐단을 없애고 학문을 일으키고 인재를 기르는 것이 급선무라하여 여러 선비와 향중 어른들하고 의논해서 거점과 의원을 통합해 가지고 伊山書院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sup>83)</sup>

安瑞 군수와 영주의 선비들은 퇴계를 잘 알고 있었다. 소수서원에서 영주 출신의 여러 학도가 퇴계한테 교육을 받은 바 있었다. 퇴계가 도산에서 서당을 건축하고 있고, 易東書院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이웃 고을 영주에서 많은 문제를 지닌 교육시설과 제도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1558년 7월에 移建을 시작하여 32間이나 되는 큰 집 養正堂을 4개월만에 완공하였다.

이 일에 퇴계도 참여하여 院記와 院規를 제정하고 손수 써 주었다. 이후 우리 나라의 서원 원규는 거의 퇴계가 만든 이 이산서원 원규를 準用하고 한국적 사학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sup>84)</sup>

퇴계의 서당교육과 서원의 창설 운동은 이렇게 시작해서 성주 迎鳳書院(盧慶麟 設立), 영천 臨臯書院(盧遂, 金應生, 鄭允良, 李完 設立), 경주 西岳書院(李楨 設立), 대구 晝岩(研經)書院(李希樑 設立) 등이 연이어 서게 되고 사교육으로서 공교육의 폐단을 시정해 나가게 된다.<sup>85)</sup> 後世에

82) 易東書院記, 《文集》卷 42, 葉 44~48.

83) 伊山書院記○拙著·《退溪家年表》p.384, 11月條.

伊山書院○《文集》, 卷 41, 葉 51~52.

84) 陶山書院 院規도 退溪가 生時에 마련해 놓은 이 院規에 準했고, 대부분 退溪에게 부탁하여 정했으므로 거의 같음.

이르러 지나치게 난립하여 교육 외의 집회 장소로 바뀌고, 물의의 대상이 되어 대원군의 서원 혁폐를 맞게 되었으나 애초의 퇴계의 서당 운동의 목적은 흥학과 존현양사 및 군자유적 인간개조와 도학적 사회 개혁에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의 서원 叢立과 그 운영 및 유지를 냉철하게 검토해 보면 이 또한 논의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사림의 서원, 학문하는 서원이 못되고 종중의 서원, 향사를 위한 서원, 문세를 상징하는 서원, 또 경치가 좋은 곳은 관광하는 곳, 유흥, 오락지로 팽개쳐 버렸다. 모처럼 큰 뜻으로 이루어 놓은 시설과 본래의 목적에 따라 활용되어야 한다. 교육 자원이요 소중한 문화유산인 이 시설은 한국의 사상과 교육 및 민족문화 연구의 본원지로서 그 기능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

한편 오늘날 제도권 교육은 사학과 공교육의 다른 면모를 찾아 볼 수 없다. 바로 이런 상황이 퇴계가 우려하던 그 시대의 교육 풍토였다. 입시 위주의 교육, 취업 수단으로서 선택되는 진학지도 교육이 퇴계가 개혁하기 이전의 공교육의 모습이었다. 인간 개조, 도덕인성 회복 등 모든 部面에서 윤리가 요청되는 이 시점에서 오늘의 문제를 풀고 미래의 복지 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교육밖에 기댈 데가 없다. 퇴계와 같은 아이디어와 용기를 가진 지혜 있고 憂患 의식을 가진 인물이 아쉽다고 하면 틀린 생각일까. 퇴계가 알고 있는 교육의 모델은 옛 중국에 있었다. 그래서 그 곳 선현의 교육과 학문을 통감한 후 현실에 맞게 도입하였으나 교육 내용은 종래의 것과는 달리 자기가 선택하고 제정해서 가르쳤다. 시대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도덕 회복에 기반을 두고 선인 만들기 평생을 바쳤다.<sup>85)</sup> 그리고 그는 가업을 성취시키고, 가문을 일으키고, 향당(지역)을 교화해 내었으며, 전국적으로 인재를 양성하여 자기의 분신으로서 모두 일익을 다 할 수 있게 하였다. 丁若鏞의 말을 빌린다면 모든 제자를 포용하였고 모두 대가를 만들어 중도지폐한 사람이 없어서

85) 《退溪先生文集》○詩, 卷 4, 葉 1~3

86) 拙著, 《예던길》 pp.341~342 <詩와 言志에서 밝힌 吾事> 즉 「高踏非吾事 居然在鄉里 所願善人多 是乃天地紀」

문인들의 후손대에 이르러서도 퇴계를 존모하고 있다.<sup>87)</sup>

그의 어버이에 대한 효와 국가에 대한 우환 의식과 학문에 대한 바른 인식은 비록 그 모습이 다를지라도, 오늘날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학과 성리학 쪽의 퇴계만을 조명할 것이 아니라, 교육 방법과 전개 과정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연구해서 원천적으로 잘못된 방향과 내용을 바로 잡아 이 나라의 민족과 문화를 되살려 놓아야 한다.

## VI. 결 언

퇴계는 수학기의 불행과 아버지가 다하지 못한 유업을 서당 교육을 통하여 효와 충과 의리를 통해서 학문을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렸으며 교육 내용을 혁신하였다. 그는 영화로운 벼슬을 버리고 힘든 교육을 통하여 인재를 양성하였고, 사회와 국가 기강을 바로 잡았다. 성현을 사숙하고 모델로 삼아 갖은 괴로움을 극복하면서 성현의 생활을 실행하는 데 일생을 바쳤다. 조정 중신과 문인이 왕에게 현인으로 천거할 수록 부끄럽게 여겼고, 愚拙庸妄人, 固陋病廢人, 駑劣虛名人으로 자신을 낮추었다.<sup>88)</sup> 스승으로 자부한 적이 없고 그가 한 일에 대하여 자신과 자만을 하지 않았다. 일개의 향민으로서 자처하고 죽기 전까지 자기를 반성하였다.<sup>89)</sup> 그가 자명에 남겼듯이 ‘살아서도 얻은 것이 없는데 죽어서 무엇을 알리(寧知來世, 不獲今兮)’하면서 죽음과 함께 그의 모든 것을 떨쳐 버렸다.

지금 사후의 퇴계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이 당신의 소망과는 상관 없는 일이지만 그의 저작과 언행록과 유적과 일화가 남아 있

87) 拙著, 《예던길》 pp.351~352 <丁茶山の 退溪私淑>

88) 拙著, 《예던길》 pp.366~367.

89) 碑前文「退陶晚隱眞城李公之墓」와 自銘文「生而大癡……復何求兮」

는 이상 그는 후학의 연구 대상이 되며, 그가 남겨놓은 교육의 여훈은 제자의 문집과 후손의 정신에 영원히 이어져 간다. 지금도 관광지를 안내하는 사람이나 표지를 통하여 또는 TV와 신문이 간단 없이 그의 인간상을 재현시키고 있다. 지나간 자취, 刻石, 명명한 산수 등에서 퇴계를 더듬어 볼 것이 아니라, 그의 생활과 교육 방법과 질에서 오늘에 필요한 것을 찾아야 할 것이다.

효로서 이룩한 서당교육에서 그 내용은 달리 하더라도, 가업과 선대를 계승해야 할 우리 민족에게는 절실히 받아들일 덕목이다. 그 시대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는 용기와 기개는 본받아야 하겠고, 어떠한 상황과 평가에도 불구하고 意忘을 굽히지 않은 선비정신은 李星湖(灑), 安順庵(鼎福), 丁茶山(若鏞)들처럼 민족의 스승으로 오늘의 교육자들도 받들고 배워야 한다.<sup>90)</sup>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퇴계의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 또 그의 전저작은 각계 각층에서 읽고 분석하여 바른 결론을 도출해 내어야 한다. 퇴계학의 연구는 아직 初入段階라고 필자는 감히 말하거니와 詩·書·日錄·許多한 專著가 世上에 다 나와 있지도 않지만 간행되어 있는 것도 다 읽고 연구해 본 사람은 금세기에 몇 사람이나 될지 모른다. 필자가 쓴 이 줄문도 사실 수박 겉핥기에 불과한 것이다. 생활실사와 시분석, 저작보와 연표를 만들면서 燕居와 家學을 주제로 사상형성 과정을 눈여겨 보다가 얻어낸 결론이다. 先學諸賢의 叱正이 있기를 衷心으로 꿈뻐한다.

90) ○ 李子粹語(처음 이름은 道東錄이다) 序·跋文 <星湖, 順庵記>

○ 拙著 《예던길》 pp.348~351.

○ 陶山私淑錄 <丁茶山>

○ 拙著, 同上 pp.351~352.